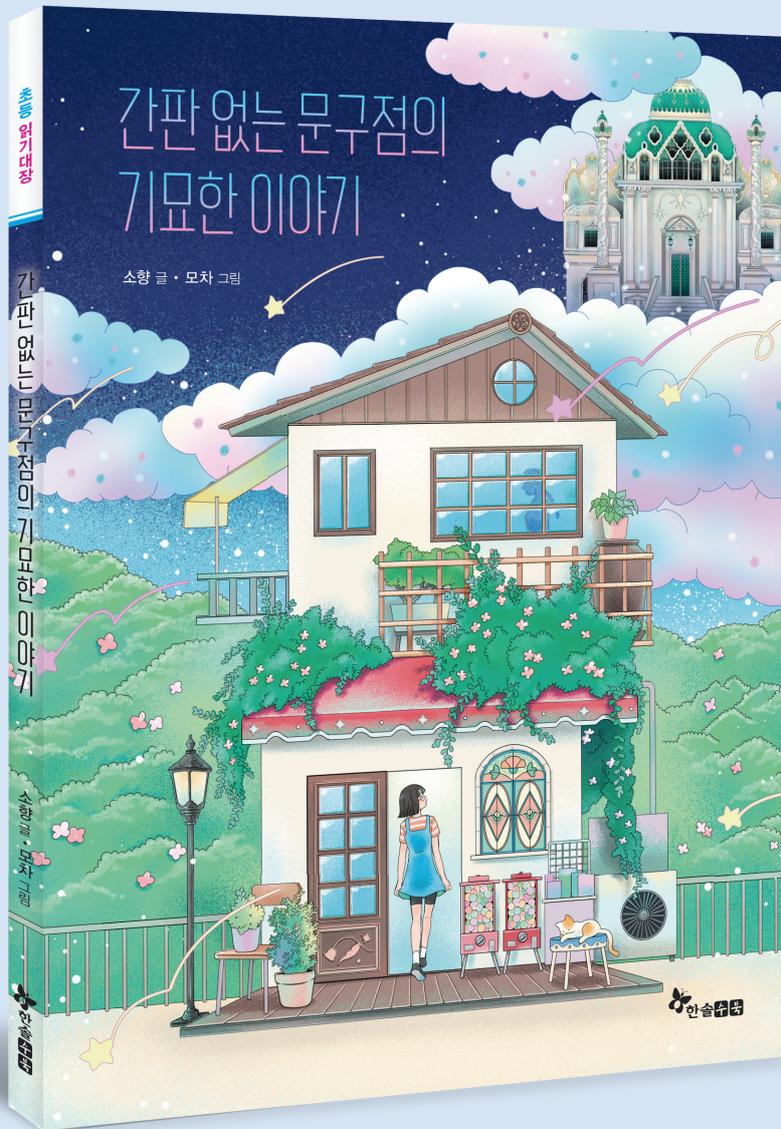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독서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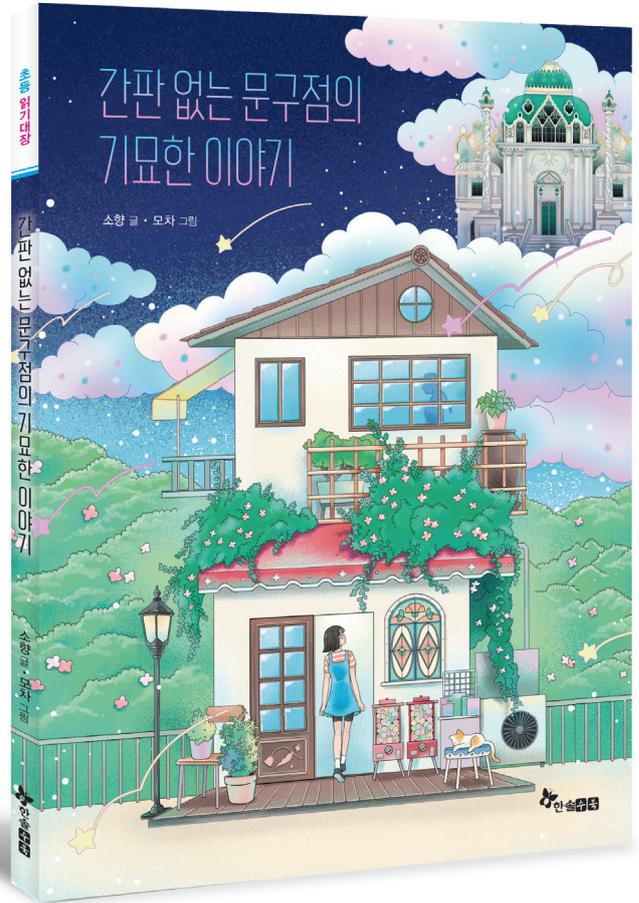
작성: 소향 작가 (동곡초등학교 교사)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초등 3 ~ 6 학년 권장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글 소향 | 그림 모차 | 165×225 | 108쪽 | 만 8세~초등 고학년



기묘한 이야기로 물건값을 받는 간판 없는 문구점에 얽힌 사연은?

작지만 없는 게 없는 간판 없는 문구점. 갖가지 간식과 문구류, 장난감이 가득한 문구점을 좋아하는 나(박연비)는 유난히 더운 여름날 저녁에도 문구점에 들른다. 주인 할머니 대신 가게를 보고 있다던 아이는 무슨 이유인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마음에 쏙 드는 색연필을 발견하지만 돈이 모자라 망설이는 내게 문구점 아이가 특별한 이벤트를 알려준다. 바로 돈 대신 기묘한 이야기로 물건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

나는 유일하게 알고 있던 기묘한 이야기인 하늘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어느 날 하늘이는 할머니의 문구점에서 신기한 크레파스를 발견하는데, 꿈에서 그림을 그리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는 크레파스였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는 딱 세 번뿐! 10분 안에 그림을 완성하고 나오지 못하면 꿈속 미술관에 영원히 갇히고 만다. 마지막 그림을 마치기 직전 누군가 미술관에 나타나는데…… 과연 하늘이는 마지막 그림을 완성하고 무사히 미술관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책의 표지와 제목 살펴보기

이름:

생각을 적는 방법

- ① 생각을 적을 때에는 나의 생각을 먼저 씁니다.
(내 생각은) ~~~라고 생각한다.
- ② 생각에 대한 이유를 본문 및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 이기 때문이다.
- ③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따라서 ~~~한 이유로 ~~~하다고 생각한다.

그림이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오른쪽 그림에 표시해 보세요.



책의 표지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문구점에는 왜 간판이 없을까요?
2. 하늘에 떠있는 건물은 어떤 곳일 것 같나요?
3. 제목에 기묘한 이야기가 들어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책 내용 상상하기

이름:

1. 차례의 제목을 보고 예측해 봅시다. 앞으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나요?

차례	
1. 간판 없는 문구점	7. 두 번째 그림
2. 그림만 그리는 아이	8. 누군가 꿈속 미술관에
3. 신기한 크레파스	9. 친구의 친구
4. 꿈속의 미술관	10. 할머니의 꿈
5. 첫 번째 그림	11. 내일 또다시, 기묘한 이야기
6. 여전히 차가운	

2.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예상 줄거리)가 펼쳐질 것 같나요?

.....

.....

.....

.....

.....

.....

.....

.....

.....

.....

.....

1. 첫 번째 기사를 읽어봅시다.

초등학생 10명 중 7명, 여전히 교실서 마스크 쓴다...“벗으면 어색”
초등학생 35% “친구와 갈등 상황서 회피”
12% “속마음 털어놓을 사람 없다”

<조선일보 2023.05.03. 손덕호 기자>

방역당국이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학생들이 ‘노마스크’로 새 학기를 맞았지만, 초등학생 10명 중 7명은 여전히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내 얼굴을 친구들이 보는 게 불편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과 서울지부 초등위원회가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17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어린이 생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초등학생의 70.2%는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답했고, ‘마스크를 벗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29.8%로 집계됐다. 응답한 초등학생의 53.0%는 마스크를 쓰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하다’고 답했다. 이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19.5%), ‘내 얼굴을 친구들이 보는 게 불편하다’(10.9%)로 나타났다.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는 10.9%에 그쳤다.

전교조는 “코로나 시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어린이들이 ‘마스크 뒤에 숨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린이들이 온라인 소통과 익명성에 익숙해졌고, 감정·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전교조는 “코로나 시기 유아기를 보낸 1~2학년은 서로의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을 읽어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늘었다는 게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1. 두 번째 기사를 읽어봅시다.

‘전학 가는 친구에게’ 87만 올린 안양초 영상 [아살세] 경기도 안양의 박달초등학교, 전학가는 학생 응원하는 따뜻한 합창 SNS 올린 채윤미 선생님 인터뷰

<국민일보 2024-10-16 신은정 기자>

살면서 이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크고 작은 헤어짐을 하며 때론 그 애뜻한 마음을 가슴으로 삼키기도 합니다.

최근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떠나는 친구에게 석별의 정을 담아 노래를 부른 영상이 네티즌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꼬맹이들이 이별의 아픔을 얼마나 알겠느냐 싶겠지만,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어 보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영상(www.instagram.com/reel/DA8i32FyFJA)에는 87만 명이 노래한 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각자의 이별 경험담을 나누는 등 75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사 중략)

“헤어질 때 말 못 했던 내 마음 고마웠어, 행복했어, 사랑했어
나에게 너란 친구 있어 감사해 친구야 고마워 잊지 않을게”

전학 가는 친구를 위해 노래하며 눈물을 참아내는 사이, 전학 가는 아이는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쏟고 맙니다.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두 신문 기사 읽고 생각 나누기

이 영상을 담아 올린 이는 이 학교의 자율동아리인 합창단 ‘꿈꾸는 하모니’를 창단해 3년째 이끄는 채윤미(42) 선생님입니다. 채 선생님은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며칠(11일) 전 전학 가는 학생을 위해 전날 합창단원 친구들이 개사된 노을이라는 동요를 불러줬고, 이를 편집해 전학 가는 친구에게 선물했다”며 “아이들이 전학 가는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계속 불러주고 있다. ‘안녕~ 잘 가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아쉬움 없이 헤어지는 모습이 삭막해 보여 늘 안타까웠다. 이 노래를 부르며 헤어지면서 ‘아이들이 표현할 방법을 모르고 그런 기회가 없었구나’를 많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채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5~6학년 음악 수업을 전담하며 합창부와 기악합주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노래 영상에 함께 울었다”는 식의 수백 개 댓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채 선생님은 “전학 간다고 친구들이 연극을 준비해주고 집까지 찾아와 노래도 불러준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나눈 분도 계셨고, IMF로 6년 동안 5번의 전학을 다녔다는 과거를 공유한 분도 있었다. 함께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며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채 선생님은 평소 합창단이 연습하거나 대회에 나가는 모습을 종종 공유하곤 하는데요. 한 번은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고3 학생이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 힘을 얻어간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네요. 채 선생님은 “마음을 나누어주신 댓글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지칠 때마다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2. 두 번째 기사를 읽고 든 생각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1. 두 번째 기사의 후략 부분을 더 읽고 박달초 학생들이 쓴 힘 나는 문장을 읽어 봅시다.

‘전학 가는 친구에게’ 87만 올린 안양초 영상 [아살세]

채 선생님에게 세상에 딱 한 가지 말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다면 무엇을 해주고 싶으신지를 물었습니다. “꿈꾸고 사랑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아이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채 선생님께 학생들에게 영상 속 전학 간 친구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는 누군가에게 응원의 말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진심으로 꺾꺾 쓴 아이들의 ‘힘 나는 문장’을 기사에 옮겨봅니다.



“슬퍼하지 마. 언젠간 노래 부를 때처럼 행복해지길 바랄게.”
“지금 당장은 지금까지의 추억이 떠올라 슬퍼하고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주변에는 자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파이팅!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
“때론 새로운 시작이 어렵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파이팅!”
“너는 어떤 곳이든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응원할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잘 안 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 좋겠어.”

“처음이라도 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모든 시작이 다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니 겁먹지 말고 시도해 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보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응원할게.”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두 신문 기사 읽고 생각 나누기

이름:

“끝이 있으면 시작도 있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잘 지내 고마웠어.”

“넌 할 수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 나가봐요.”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 잊지 않기 언젠간 다 잘 될 거야.”

“늘 행복하고 잊지 말자 괜찮아 파이팅이야!”

2. 박달초 학생들의 글을 보고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나는 문장을 써 봅시다.

.....

.....

.....

.....

.....

.....

.....

.....

3. 두 기사를 읽은 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

.....

.....

.....

.....

.....

.....

1. 기사에 나오는 안양 박달초는 군인아파트 옆에 있어 많은 학생이 친구와 이별하는 아픔을 겪는 학교입니다. 박달초 학생들과 채윤미 선생님의 뉴스를 시청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합창부 떠나기 싫어 전학 취소”
졸업생들이 찾아와 노래해주는 초등학교



2. 하늘이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친구들은 물론 가족과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3. 위 영상을 보고 채윤미 선생님이 말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①

②

③

.....

4. 마음을 표현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줄거리 간추리기

이름:

1. 책을 읽고 이야기의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칸을 꼭 모두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칸이 부족하다면 아래 빈 곳에 쓰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등장인물 알아보기

이름:

1.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봅시다.

등장 인물	인물의 말이나 행동	생각이나 느낌
	하늘이는	
	할머니는	
	보라는	
	다은이는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인물과 나의 삶 관련짓기

이름:

- 감사 · 겸손 · 공평 · 관용 · 배려 · 믿음 · 보람 · 사랑 · 성실 · 신중 · 약속 · 양심 · 예의 · 용기
- 유머 · 이해심 · 인내 · 자신감 · 정직 · 존중 · 책임 · 친절 · 행복 · 경청 · 공감 · 끈기 · 바른 마음
- 보살핌 · 부지런 · 생명 존중 · 솔선 · 아름다움 · 양보 · 우정 · 자연 사랑 · 자유 · 절약 · 절제
- 정돈 · 즐거움 · 질서 · 착한 마음 · 평화 · 협동 · 희망 · 권력 · 힘 · 가족 사랑 · 실용 · 효율

1. 등장인물을 고르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적어 봅시다.

예) 등장인물 ()는 ()를 중시하는 사람인 듯하다.

.....

.....

.....

.....

.....

.....

.....

2.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골라 적고 그 까닭을 써 봅시다.

예) 나는 ()를 중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

.....

.....

.....

.....

.....

.....

.....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새로운 색의 이름 지어보기

이름:

1. 다음 문장(본문 13~14쪽)을 읽어봅시다.

색연필에 적힌 이름도 하나하나가 특별했다.

‘아직 덜 익은 사과에 남은 연두,’

‘벗꽃이 진 뒤 나온 새잎,’

‘오후 네 시 공원의 잔디,’

‘햇빛에 반짝이는 미루나무잎,’

‘봄비를 맞은 풀잎.’

2. 내가 책 속에 나오는 색연필처럼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적어보세요.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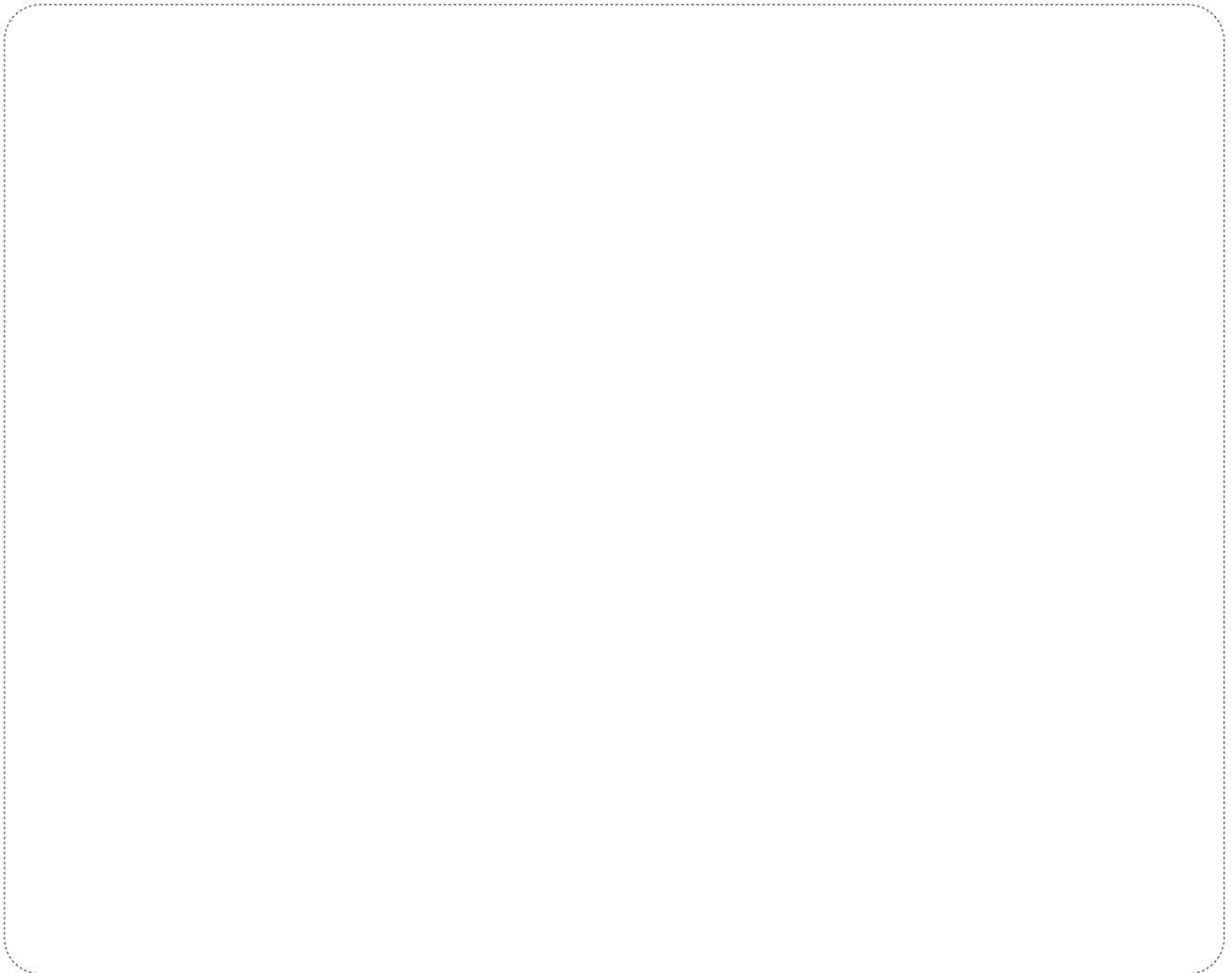
.....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내게 책 속 크레파스가 생긴다면?

이름:

1. 내게 10분 안에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크레파스가 생긴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나요? 원하는 그림을 그려 봅시다.



2. 위 그림을 그린 까닭을 써 봅시다.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인물의 감정 생각해 보기

이름:

다음 본문(74~75쪽)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은 우두커니 서 있는 하늘이를 남겨 두고 모두 교실로 뛰어갔다. 그런데 보라가 몸을 돌려 하늘이 쪽으로 다시 달려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늘아, 같이 들어가자.”

하늘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관 말고 너나 가.”

쌀쌀맞은 하늘이 말에 보라는 멈칫했다. 그러고는 다시 교실로 달려갔다.

이번에도 하늘이는 먼저 다가온 보라를 밀어내고 말았다. 후회했을 때는 이미 말이 나오고 난 뒤였다. 하늘이는 자기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1. 하늘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2. 하늘이는 왜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이때 하늘이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

3. 나도 하늘이처럼 사과하고 싶은데 반대되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4. 보라와 다은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봅시다.

.....

5. 마법 크레파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용기 내어 사과한 하늘이에게 하고픈 말을 적어봅시다.

.....

.....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인물의 감정 생각해 보기

이름:

하늘이와 아빠는 의견 차이로 인해 끊임없이 부딪히고, 단짝이었던 보라와도 감정의 골이 나 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입장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나의 생각도 함께 적어봅시다.

등장 인물	인물의 입장	나의 생각
하늘이		
아빠		
할머니		
보라		
다른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인물의 감정 생각해 보기

이름:

1. 하늘이는 외롭거나 마음이 힘들 때 그림을 그립니다. 하늘이가 힘든 순간을 좋아하는 취미로 이겨내는 방법이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던 적이 있을 텐데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긴장감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평소에 힘든 순간이 오면 이겨내는 방법을 적어주세요.

.....

.....

.....

.....

.....

2. 하늘이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꿈을 많이 꾸나요? 기억에 남는 특별한 꿈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

.....

.....

.....

3. 하늘이는 외롭다고 느꼈지만, 알고 보면 하늘이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을 아끼고 좋아해 주는 사람에 대해 적어봅시다.

.....

.....

.....

.....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인물의 감정 생각해 보기

이름:

1. 하늘이는 외롭거나 마음이 힘들 때 그림을 그립니다. 하늘이가 힘든 순간을 좋아하는 취미로 이겨내는 방법이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던 적이 있을 텐데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긴장감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평소에 힘든 순간이 오면 이겨내는 방법을 적어주세요.

2. 하늘이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꿈을 많이 꾸나요? 기억에 남는 특별한 꿈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3. 하늘이는 외롭다고 느꼈지만, 알고 보면 하늘이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을 아끼고 좋아해 주는 사람에 대해 적어봅시다.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인물 알아보기(할머니의 꿈)

이름:

1. 할머니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는 할머니의 기억을 찾아 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

.....

.....

.....

.....

2. 할머니는 꿈이 있지만 꿈을 이루는 순간을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할머니 입장이 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그 까닭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

.....

.....

.....

.....

3. 꿈은 우리 삶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의미를 더해줍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 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

.....

.....

.....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등장 인물에게 편지 쓰기

이름:

1. 등장인물에게 하고픈 말을 짧은 편지로 써 봅시다.

등장 인물	편지
	하늘이에게
	할머니에게
	보라에게
	다은에게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독후감 쓰기

이름:

1. 책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써 봅시다. 페이지도 적어주세요.

.....

.....

.....

.....

2. 이 책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① 나는 이 책의 키워드가 #_____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_____

② 나는 이 책의 키워드가 #_____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_____

3. 책을 읽고 난 감상이나 소개하는 글을 써봅시다.

.....

.....

.....

.....

.....

.....

.....

.....

.....

.....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사전을 활용해 낱말의 뜻 찾기

이름:

1. 책에서 모르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 뜻을 적고 낱말을 이용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낱말	낱말 뜻과 만든 문장
	뜻:
	문장: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골든벨 & 작가에게 편지 쓰기

이름:

1. 책을 읽은 뒤 골든벨 퀴즈를 풀어봅시다.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9	
2		10	
3		11	
4		12	
5		13	
6		14	
7		15	
8		16	

2. 책을 쓴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봅시다.

.....

.....

.....

.....

.....

.....

.....

.....

.....

.....

.....